“붉금데이 때 빨간 티 입자”

진안 홍삼축제 성공 기원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
전 군민 동참·관심 유도

2018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매주 금요일 다 같이 빨간 티를 입는 ‘진안홍삼 붉금 Day’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군은 2018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매주 금요일 다 같이 빨간 티를 입는 ‘진안홍삼 붉금 Day’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진안홍삼 붉금 Day는 전 군민의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붉금 Day에는 600여 진안군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들까지 동참하며 진안군 곳곳에서는 등에 진안홍삼축제가 새겨진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홍삼한방센터, NH농협 중앙회, 전북은행, 무진장축협, 전북인삼농협, 진안 새마을금고, 진안홍삼스파, 마이산북부 상가, 진안상인회, 홍삼주조장, 황금코다리, 농림상사 등 많은 기관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빨간 티를 입으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전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성공적인 홍삼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 진안홍삼축제는 ‘즐겨라 진안! 마셔라 홍삼! 달려라 청춘!’을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펼쳐지며. 홍삼관련 프로그램과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 기대해 볼만 하다.

/진안=우태만기자

소박한 농촌형 축제 ‘눈에 띄네~’

진안읍 상가막 마을서
‘율무떡 축제’ 성료

진안군 진안읍 상가막 마을(이장 김금석)에서는 지난 25일 ‘율무떡 축제’라는 주제로 마을축제가 열렸다.

상가막 마을은 주민 50여 명이 인삼, 오미자, 친환경 율무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마을지대가 높아 풍광이 아름답고 마을 뒤편에는 산책로가 있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마을 특성을 활용해 2016년부터 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날 축제는 상여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마을 탐방, 디딜방아, 떡메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간 마을공동체 가치를 공유하고, 방문객들과는 문화 교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진안읍장은 “진안군 마을축제는 진정한 농촌축제로 마을특성을 살린 진안고유의 마을축제가 연중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곳곳에서는 지역과 주민이 기획한 작고 소박한 농촌형 축제인 진안군 마을축제가 한창이다. ‘마을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진안’이라는 슬로건으로 50여 개의 마을들이 마을 특성에 맞는 축제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태풍 ‘솔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판단 및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휴일반납 태풍 피해복구 최선

장영수 장수군수 ‘솔릭’ 대비
재난종합상황실 방문 격려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지난 20일부터 태풍 ‘솔릭’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은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3m/s, 강풍반경 380㎞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지만, 상황판단 및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며, 관련부서와 읍·면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태풍 ‘솔릭’대비했다.

재해취약지역 예찰, 그늘막 철거 등 소관시설물 점검, 번암·장계의 하상주차장 차량 이동주차 및 출입통제 실시를 통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특히 사과 등 과수피해와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피해와 그에 대한 2차 피해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또한 장수군은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휴일에도 쉬지않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지난 24일 장수군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솔릭’ 내습에 따른 조치상황 보고를 받고 비상근무중인 관계공무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군수는 “태풍 솔릭은 지나갔지만 후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 및 피해조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

무주군이 2018년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근 3년 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없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무주군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분석하고 적극적인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과 예방활동,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계층별 대상별 식중독 예방활동 및 홍보 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계절별 정기점검(분기 1회 1,020회)과 음식·숙박업소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59개소 6억8,000만 원), 식품위생업소별 위생용품구입 지원(970개소 3억7,000여만 원),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2회 100명), 집단급식소 방문 점검(80개 학교), 수학여행단 방문지 집단급식소 방문 점검(36개소), 계층별 구분 없는 식중독 예방 활동(12회), 그리고 지역행사 시 예방 홍보활동(1만2,000명)등이 눈에 띄는 성과로 꼽히고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생 담당은 “2017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해 올해 말까지 한시 조례를 제정해 관내 위생접객업소들의 시설환경개선과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매진한 게 우수기관으로 까지 선정되는 이유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책추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인구 감소세 뚜렷… 위기극복 첫 걸음

무주군 대책위원회 개최
위원 21명 위촉 활동 돌입

무주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인구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고 세부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윤여일 부군수, 그리고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구 늘리기 추진체계 구축과 주민인식 개선, 전입유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정주여건 개선 등 무주군 인구정책 추진 현안사업들을 공유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제정 및 시행,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그리고 9월부터 실시 예정인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내용을 짚으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인구는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지만 지속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져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인구 문제는 전 군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성과를 높이고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는 만큼 오늘 위원회를 시작으로 그 움직임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장을 받은 무주군 인구 늘리기 대책추진위원들은 총 21명으로 무주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의료·교통·도시계획, 귀농·귀촌 및 농업지원, 인구정책개발, 양육다문화교육지원 등에 관한 시책발굴과 제안, 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메아리

무주형 일자리창출 머리맞대

무주군은 지난 22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발굴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윤여일 부군수와 무주군의회 이광환 부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업들과 일자리 관련 기관, 그리고 도내 일자리기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대우 연구원으로부터 ‘무주군 일자리 현안 분석과 지역주도형 우수 일자리창출 사례’ 발표를 듣고, △제조업체 취업 기피현상 해소방안과 △청년층 유입 및 정착 방안, △무주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방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여일 부군수는 “우리 군만의 천혜의 산림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늘려 군민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협의회체’는 무주군이 캡틱종합기술원과 함께 진행 중인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홍보 열기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vs 대구FC’와의 경기에서 축제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2회 째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전북현대모터스와 함께하는 ‘장수 군민의 날’을 맞아 장수군청 농업정책과 및 장수산림조합직원 15명이 축제 홍보 리플릿과 오미자음료 약 3천(매)개 무료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무료시음 부스를 운영해 농·특산물을 알리고 여름철 월드컵경기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오미자슬러시, 토마토즙, 사과즙, 부채, 물티슈를 제공해 제 12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2018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육성축제로도 지정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작년 11회축제 개최시 30만명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1억원, 경제효과 93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